

大學의 理性에 입각한 開放的 임용이어야

金 禹 昌
(高麗大 英語英文學科)

대학이 하는 일 또는 그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학문 연구의 본래적 성격을 생각할 때, 대학 기구의 핵심적 요소인 教授의 任命에 있어서 자기 학교 출신이나, 다른 학교 출신이나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괴이한 일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학의 대원리는 選性이다. 대학의 학문은 그 관심과 분야와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현상을 이성적 원칙에 따라 이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성적 원칙은 어느 특수한 사실적 연관에 의하여 제약되는 원칙이 아니라 모든 사실과 인간에 열려 있는 보편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대학은 물론 학문의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 교육이란 것도 검증되지 아니한 전제와 편견을 떠나서 보편적 이성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형성에 그 핵심을 두어 마땅하다. 대학의 학문의 연구와 교육은 이런 점에 있어서 필연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대학의 모든 면이 대학의 생명이 되는 이성적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의 본질과 기능, 또 사명을 담당해 나갈 중추적인 요소인 교수의 임용이 보편적 이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 학문과 교육의 우수성이라는 기준 이외의 것이 통용된다면, 그것은 대학 기본에 위배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대학이 스스로를 평가 절하하는 일이 된다. 대학과 대학인의 자부심은 특수한 사실적 관계보다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세

간의 평가에 관계 없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대학은 스스로 소위 이류, 삼류 또는 사류 대학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오늘날 한국의 많은 대학에서 보편적이고 개방적이며 이성적인 학문적·교육적 우수성보다도 지연, 학연, 인맥 등의 작용이 크다고 한다면 또는 적어도 이 후자의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말한 대원칙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전에 필요한 것은 아마 원칙의 천명보다도 원칙이 적용될 수 없게 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요 그 원인의 제거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보편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 원인에는 수궁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원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면서 원칙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

도 있다. 학문이 아무리 보편적 지평으로 열려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학문의 성과는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의 깊이에 관계되어 있다. 이것을 확대하여 학문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관심과 흥미의 초월적 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훨씬 간단한 세간적 차원에서 관심과 학문의 성과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일이다. 가령 지역 사회에 대한 연구는 그 지역에 생활상의 또는 정서적인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지역 공동체의 범위는 문명권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또는 더 작게 문자 그대로의 지역 사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사사로운 것일 수는 없다. 全南大에 전남 지역의 지방사나 고고학의 강좌가 있다고 한다면, 지방에 여러 가지 뿌리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적절한 강좌 담당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보편적 이성의 원칙에 위배될 필요는 없다. 이 때에도 기본적 기준은 학문의 우수성이며, 출신 지방은 단순히 제2차적 자격 요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2차적 요건도 학문 영역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다른 이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편적 개방성에 대한 제약은 극히 조심스럽게 생각되어야 한다. 깊은 관심이 학문에

관계된다고 하더라도 특수한 사실적 관련을 넘어서는 보편적이고 초연한 태도는 여기에 필수불가결한 보완적 원근법을 제공하여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 사회 또는 국부적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학문적일 뿐만 아니라 素人的인 관심—은 반드시 출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학문적 또는 개인적 관심의 관련으로부터도 생겨날 수 있다. 사실 바람직한 학자상 또는 인간상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의 지역적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적 학문의 원근법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학문하는 사람에게 기대하여도 좋은 자질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방금 말한 것은 편파성의 원인을 짐짓 긍정적으로 상정해 본 데 불과하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폐쇄적 관행이 훨씬 더 낮은 차원의 이유와 원인에서 나오는 것임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다. 가장 넓게 말하여 그것은 우리 대학 문화에 있어서 또 우리 사회와 문화에 있어서 이성적 문화가 아직도 충분한 발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일들, 그것도 사회의 공적 공간의 많은 일들이 공공성의 원칙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배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대학에서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대학에서 그러한 것이

더욱 요구되어 마땅한 것도 사실이다. 학문과 학자의 정의 자체가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문이 특수성으로부터의 초월과 보편 원칙에의 충실에 의하여 정의됨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에 맞추어 학문은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원칙으로서만 자기 자신을 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기율과 금욕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인간 현실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인간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인간 관계는 이익에 얽매어 있다. 그것은 경제적 이익 또는 권력의 통로가 된다. 또는 사회적 지위나 평판을 만들어 내는 연줄이기도 하다. 또 그것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정의 끈들을 말할 수도 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러한 모든 것—특히 긍정적 의미를 가졌다고도 할 수 있는 인간 관계의 여러 요소—에 대하여 초연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런 많은 것에 대하여 일단의 체념이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학문의 길이다. 또는 적어도 학문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세속적인 매력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면서 진리의 빛에 의하여 미묘하게 바뀌고 새로운 조화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야 할는지 모른다. 이 변화에는 체념의 거리가 작용한다. 그러면서 이 거리가 길게 볼 때는 더 많은 것을 더 큰 조화 속에 살려

내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대학이 완전히 보편주의의 원칙을 채택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을까? 불평등과 불균형의 역사 속에 형성된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보편적 원칙의 적용에 의하여 하루 아침에 시정되지 않는 것임은 사회현상이나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익히 관찰해 온 바이다. 그러한 기계적 보편 원칙의 적용은 기득권자의 이익 옹호에 기여할 뿐이다. 국제 무역에서 자유·평등·호혜 원칙이 강대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임은 우리가 최근에 흔히 보는 일이다. 오늘날 대학의 교수 임용에 있어서 보편주의 원칙을 당장에 실행한다면 어떤 한정된 대학, 가령 서울大 출신의 사람들에 의하여 모든 교수직이 획일적으로 독점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이러한 질문은 현실적 우려를 표현한다.

여러 특수한 사정—백일하에 드러낼 수 없는 암거래의 구구한 사정—에 영크러져 오늘날의 교수 임용이 형평을 갖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우려이다. 이 우려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근본 원칙이 보편적 관점에서의 학문과 교육의 우수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위 일류 대학에 의한 교

수직의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참으로 보편적 우수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그것은 표면적으로 그러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아닐까? 허다할 것이 아닌가 한다. 일류 대학의 이름에 사로잡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판단을 포기한 결과 일류 대학의 지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 출신 학교에 관계 없이 학문적 업적과 교육적 능력을 엄정하게 평가한다면, 아마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른 출신 학교의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어찌 학문의 능력이 대학입시의 수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결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대학입시 제도가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신묘한 제도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참으로 창조적인 지적 능력을 극히 단순화하여 획일적인 스케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 능력은 대학 입학 무렵까지 모두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기에서 길게 논할 수는 없으나, 아마 오늘의 대학입시 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창조적 지적 능력의 측정보다는 희망과 체념, 자신감과 자포자기, 권위와 권위에 대한 승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기구로서 작용하는 의미를 갖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결과 실제 사람의 지적·인격적 발달

에 커다란 형성적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즉 사회적으로 고무 조장된 자신은 상당한 정도로 그에 상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라는 말이다. 일류 대학 출신의 우수성은 이러한 점에도 관계되어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여 타고난 자질에 못지 않게 사회가 허용하는 자기 최면술과 사회적 고무 또한 누적된 기회 부여와 획득에 따르는 결과인 것이다.

한 이러한 사실적인 관련을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잠정적으로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만 교수임용을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진정한 우수성의 지배보다는 우수성의 사회적 여건—반드시 이성적이라 할 수 없는—의 항구적 지배를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 우리는 진정한 보편적 개방성을 위하여 외적인 제약 규정을 만들어야 할는지 모른다. 즉 교수 임용에 있어서 본교 출신과 타교 출신의 쿼터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장에 소위 일류 대학 출신, 또 일류 본교 출신만이 우수하다는 환상 아래 본교 출신 교수만을 채용하는 일류 대학에게 開放性을 요망하는 일이 될 것이고, 방어적인 의미에서 자기 학교 출신만을 채용하는 소위 군소 대학에 우수한 교원들의 유입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어쩌면 독일 대학이나 미국 대학에서 하듯이 자기 학교 출신은 일단 자기 학교에서 채용하지 않고 다른 학교에 가게 한 다음에

업적에 따라 자기 학교로 불러오는(berufen)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수 요원의 학교 간 교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과 업적에 의한 평가의 단계를 하나 더 설정하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러한 단계를 설정하는 효과

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궁극적으로 교수 임용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이성적이며 개방적인 원칙이 적용되게 하기 위한 여러 현실적 방안이라는 태두리

속에 있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편적 이성의 원칙이다. 대학과 대학의 문화 전체가 이러한 理性的 普遍性과 開放性의 구체적 모범이 될 때 우리 문화는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大學教授招聘情報室 등록 안내>

大學教授가 되고자 희망하는 고급 인력에 관한 情報과 資料를 확보하여 專任教授를 초빙하려는 會員大學에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 협의회 大學教授招聘情報室은 아래와 같이 대학 교수 희망자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1. 登錄對象

전국 4년제 대학 專任講師 이상의 教授資格要件을 구비하신 분(단, 회원대학의 現職教授는 제외됨)

2. 登錄方法

본 협의회 소정양식 “教授資源人事記錄카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3. 登錄時期

年中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4. 接受處

①⑤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사학연금회관 503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내 대학교수초빙정보실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783-3065, 3067, 3068, 3891)